

새로운 중심지 노형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던 노형은 도시 개발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지금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변화한 도심이 되었다. 그렇게 노형은 제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노형로 | 제주시 해안동 2374 ~ 제주시 노형동 1288-5(약 4.2km)

원노형로 | 제주시 노형동 905-3 ~ 제주시 노형동 732(약 1.1km)

정존1길 | 제주시 노형동 2519-23 ~ 제주시 노형동 2511-5(약 0.4km)

수덕로 | 제주시 노형동 2581-3 ~ 제주시 노형동 2586-1(약 0.9km)

광평길 | 제주시 노형동 2488-1 ~ 제주시 노형동 3116-5(약 0.6km)

월산북길 | 제주시 도평동 44-1 ~ 제주시 노형동 3278-15(약 0.8km)

노형로 | 노형동



노형로터리

노형로는 노형동을 통과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평화로가 끝나는 무수천 인근에서 시작해 신제주 서쪽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노형로의 동쪽 끝인 노형오거리는 북쪽으로는 해안마을로 향하는 월랑로가, 남쪽으로는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1100로가, 동쪽으로는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령로가, 서쪽으로는 대정까지 이어지는 평화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여서 많은 차들로 북적인다.

곳곳에 솟아있는 아파트와 빌딩, 사방으로 뿔려있는 도로, 바쁘게 오고 가는 자동차의 행렬이 전형적인 도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형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노형, 월랑, 정존, 광평, 월산 등의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농사를 짓던 밭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구불구불 숲 사이를 지나던 오솔길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넓은 길이 되었다. 오늘날 제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노형은 상전벽해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노형로 | 원노형마을



원노형마을

원노형마을을 지나는 길인 원노형로는 남녕고 앞 교차로에서 시작해 한라초등학교까지 이어진다. 노형로터리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원노형은 노형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지금은 변화가 된 노형동의 마을들은 4·3사건 때 모두 큰 피해를 입었었다. 마을이 모두 소개되면서 사람들은 해안가 여러 마을로 뿔뿔히 흩어져 타향살이를 해야 했다. 원노형 역시 이 사건에 휩쓸려 황폐화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마을이 다시 재건되면서 다행히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함박이

굴, 방일이, 맥구릉 같은 다른 마을들은 영영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정존1길 / 수덕로 | 정존마을

노형로 북쪽에 위치한 정존마을에는 **정존1길**처럼 마을의 이름을 딴 반듯한 길들이 나 있다. 이 마을에는 옛날에 정종(正宗)이라 불리던 힘이 센 장사가 마을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장사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정종으로 부르다가 종(宗)자가 왕이 쓰는 글자라고 해서 존(尊)자로 바뀌 정존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제주의 곳곳에는 정존마을처럼 힘센 장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소 아홉 마리를 먹고 태어났다는 오찰방, 호랑이 눈을 가진 범친충, 도적이 된 논하늬와 같은 장사들은 장정 열 명을 혼자 감당할 정도의 힘을 자랑했다. 장사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쉽게 해내던가 관아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그들을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장사들은 지방의 낮은 벼슬을 하는데 그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어쩌면 지리적으로 변방인 제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제주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장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했는지도 모른다.

정존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덕로**는 월랑로에서 광평동로로 이어지는 길이다. 예전 이 부근에 커다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해서 수덕동산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래서 노형초등학교 주변의 길들에 수덕이란 이름이 붙었다. 정존마을은 4·3사건으로 황폐화된 노형의 마을 중 가장 먼저 재건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 노형초등학교와 노형동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노형동의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오늘날은 큰 돌들이 있던 언덕은 사라지고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광평길 / 월산북길 | 광평마을과 월산마을

광평길은 도평입구 교차로에서 시작해 광평동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넓은 들을 의미하는 옛 지명인 ‘너븐드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광평(廣坪)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광평마을의 설촌과 관련해 일화가 전해온다. 옛날 광평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아 나무와 역새로 우거진 곳이었다. 그러다 현치적이란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밭을 일구고, 사냥을 했지만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고전적에게 사냥감의 일부를 드리곤 했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고전적은 자신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고마워 현치적에게 좋은 터를 가진 땅을 소개해 주었다. 현치적은 고전적이 가르쳐 준 곳으로 집을 옮기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이후 현치적은 하는 일이 잘 풀려 이 일

대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다고 전한다.

광평마을의 서쪽에는 월산마을이 있다.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월산복길**은 우평로에서 노형로까지 이어진다. 마을의 지형이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월산(月山)이라 했다고 한다. 월산마을 인근에는 원장천과 도근천이 지나고 있어 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샘들이 있었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는 고봉기물이나 큰 녹나무가 있는 당이 있었다는 녹남당물, 그리고 빨래터와 가축을 먹이는데 사용되었던 검은소 등의 샘물들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노형동의 여러 마을들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광평마을과 월산마을은 아직 개발의 바람에 닿지 않아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